



불야성 이룬 제주의 여름밤 21일 저녁 제주시 아라동에서 바라 본 여름밤 풍경. 제주시내 야경과 수많은 어선들이 켜놓은 집어등 불빛이 어우러지며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강희만기자

“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부실”

어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서 도민 공청회 개최
 용역진 트램·물류단지 등 15개 핵심사업 제시
 “관광·1차산업 등 부실… 부결 처리 가능성 커”

제주특별자치도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수립한 종합계획을 대폭 수정하지 않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부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자치도는 22일 오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국토연구원원이 수행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대한 도민 공청회를 실시했다.
 이날 국토연구원원은 15개 핵심사업으로 ▷제2공항 연계 스마트 혁신도시 ▷청정제주 트램 구축 ▷제주형 혁신 물류단지 조성 ▷중산간 순환도로 조성 및 스마트환승허브 구축 ▷배움과 삶이 함께하는 국제교육도시 조성 ▷제주화산과학관 및 콧자

트램이 유명하지만 그건 오래되기도 했고 주변에 랜드마크가 많기 때문에 관광자원이 될 수 있었다. 제주 도시 구조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성보 제주대 교수는 "1차산업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제주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의문"이라며 "기후변화·환경보전이라는 틀 안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과 목표가 뒤죽박죽"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철 도의원은 "2031년도 관광객을 1800만명으로 잡았는데 현재 제주국제공항 터미널 구조개선 등만 추진해도 3400만명 수용이 가능하고 또 현재 높고 있는 항만시설, 강정해군기지 민간 크루즈 시설 활용 계획을 만들면 제2공항을 거론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12억 5000만원 짜리 용역인데 연구진을 보면 1차산업이나 관광전문가들은 없고 대부분 도시계획이나 건축분야 연구진이 참여하고 있다"며 "이러니까 이런 계획

원 지사 “7월 언제든 사퇴 가능케 준비” 어제 서울서 대선자문그룹 원코리아혁신포럼 출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대선 자문그룹 출범식을 갖고 대권 도전의 시동을 걸었다.
 원 지사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컨시덴트호텔에서 원코리아혁신포럼 출범식을 가졌다. 원코리아혁신포럼은 원 지사의 대권행보를 위한 지지자 모임이다.
 출범식에는 원 지사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해 원 지사를 응원했다.
 이 대표는 “거의 25년에 달하는 노력을 이제는 인정 받으실 때가 됐다”고 말했고, 김 원내대표는 “원 지

제주 기점 ‘트래블 버블’ 시행되나 도, 이달 중 정부 건의… 관련 여행상품 개발 추진

제주도가 제주를 기점으로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Travel bubble)' 도입 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고사 직전인 외국인 관광시장 회복 기반 마련을 위해 '제주 기점 트래블 버블' 도입 방안을 이달 중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제한적인 교류 회복 방안으로 다음달 방역 신뢰 국가와 단체 여행에 대해서 트래블 버블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국제공항도 그 거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제주지역은 지난해 2월 4일 무사중 일시 중지 이후 국제직항노선이 전면 중단돼, 전년 동기 대비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89%, 2019년 대비 97% 급감했다.
 또 외국인 대상 국내 여행업체가 장기적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관광진흥기금 재원인 출국 납부금과 카지노 납부금은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관광진흥기금 고갈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제주도는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협회, 한국공항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한 '트

지역언론 활성화·분산에너지 등 논의 24~25일 제주포럼서 관련 세션… 활성화 방안 등 모색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과 민주주의 실현 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언론의 역할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6회 제주포럼 둘째 날인 오는 24일 오전 10시 50분 서귀포시 표선면에 위치한 제주해비치호텔 크리스탈홀D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역언론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주포럼 세션을 운영

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세션을 통해 지역언론 생태계 위기 원인을 살펴보고, 건강한 지역언론 형성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의 논의를 진행한다.
 장호순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발제에는 ▷고영권 제주도 정부부처사

가 '지방분권의 시대, 제주언론의 자치분권 모델이 필요하다' ▷최낙진 한국지역언론학회장이 '지방분권 의제, 지역언론이 감당하고 추동해야'라는 주제로 참여한다.
 한편 오는 25일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분산에너지 확대 방안'을 주제로 한 세션이 진행된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제주 코로나19 누적 확진 1234
 22일 17시 기준

Jeju Booyoung Youth Center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 청소년들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곳 ”
 아름다운 자연속에 추억이 머무는 곳

최고보다 최선을, 성공보다 행복을 꿈꾸는 청소년을 위한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의 청소년지도자들은 인성, 진로, 놀이, 봉사, 리더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련활동에 참여, 숙박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아름다운 환상의 섬 제주에서 청소년들이 미래 지향적 사고와 꿈을 키우고, 몸과 마음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수련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전과 용기 그리고 희망을 키우는 터전!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상로17번길 52-17(중문동)
 T. 064-760-5700 F. 064-760-5757